

하수오(何首烏)와 백하수오(白何首烏)의 기원과 명칭에 대한 연구

최환수 · 주매분 · 김정숙 · 이제현*
한국한의학연구원,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Abstract

Studies of Name and Herbal Origins of Ha-Soo-Oh

Choi Hwansoo, Zhu Meifen, Kim Chungsook, Lee Jehyu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Pharmacy, Kyunghee University

Polygoni multiflori Radix has been used as a tonic medicine. In Korea, Cynanchi wilfordii Radix have been used too. Their names are resembled, but their plant origines are different. Polygoni multiflori Radix is called 何首烏 or 赤何首烏, and Cynanchi wilfordii Radix is 白何首烏 or 白首烏. They are suggested that they had been confused using at the early days in drug history.

Polygoni multiflori Radix is enclosed in the pharmacopoeias of Korea, North Korea, Chinese and Japan. The nomina of pharmacopoeias are 赤何首烏 at North Korea and 何首烏 at other countries; Korea, Chinese and Japan. Cynanchi wilfordii Radix is just enclosed in Korea and North Korea. It means that Cynanchi wilfordii Radix has been commonly prescribed in Korea and North Korea than other countries. The nomina of pharmacopoeias are 白首烏 in Korea and 白何首烏 in North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何首烏 in ancient herbal records are confused of Polygoni multiflori Radix and Cynanchi wilfordii Radix. But Polygoni multiflori Radix is fixed at 何首烏 later. In Korea (south and north) Cynanchi wilfordii Radix has been recorded to using in 東醫寶鑑 that was Korea traditional Medicinal book and wrote at 1613. The 白首烏 is named in chinese about 20 century, but 白何首烏 is in korea about 19 century.

In these consequences, prescription of Cynanchi wilfordii Radix in Korea is earlier than Chinese and Japan, and more common consumption too. So the nomen of 白何首烏 is better properly than 白首烏 in Korean Herbal pharmacopoeia.

Key words : Polygoni multiflori Radix, Cynanchi wilfordii Radix, Cynanchum wilfordii, Herbal origin, Herbal nomen

* 교신저자 : 이제현,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Tel. 02-961-0356, E-mail : leejh@khu.ac.kr

■ 연구비지원기관 : 본 연구논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I. 서론

하수오(何首烏)는 보간(補肝) 익신(益腎) 양혈(養血) 거풍(祛風)의 효능으로 임상에서 사용하는 한약재이다¹⁾. 그러나 하수오(何首烏)는 일반적으로 한방 임상에서 백하수오(白何首烏)와 적하수오(赤何首烏)의 2종류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상의학의 효시인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는 하수오(何首烏)라는 명칭이 없이 적하수오(赤何首烏)와 백하수오(白何首烏)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²⁾. 그러나 약의 정식 명칭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적하수오(赤何首烏)의 정식 약명은 하수오(何首烏; *Polygoni multiflori Radix*)로 규정하였고 백하수오(白何首烏)는 백수오(白首烏; *Cynanchi wilfordii Radix*)라는 명칭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기원식물에 차이를 두고 있다³⁾.

하수오(何首烏)의 명칭은 문헌 기록을 보면 『일화자(日華子)』에 최초로 하수오(何首烏)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으며⁴⁾, 이후 하수오(何首烏)의 명칭으로 많은 한방 서적에 수록되어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다⁵⁾⁶⁾⁷⁾⁸⁾. 그러나 백하수오(白何首烏)나 백수오(白首烏)의 명칭은 고문헌에서 발견할 수 없어 하수오(何首烏)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약전을 보면 하수오(何首烏)는 수재되어 있으나 백수오(白首烏)의 항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⁹⁾¹⁰⁾. 그러나 우리나라와 북한은 『약전』 혹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하수오(何首烏)와 함께 백수오(白首烏) 혹은 백하수오(白何首烏)의 항목을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³⁾¹¹⁾, 하수오(何首烏)와 함께 백하수오(白何首烏)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¹²⁾¹³⁾.

백수오(白首烏)의 명명과 관련하여 중국은 1959년에 발간된 『산동중약(山東中藥)』에 최초로 명명하면서 고문헌의 기록에 있는 백색의 하수오(何首烏)가 이것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⁴⁾.

이에 하수오(何首烏)와 백수오(白首烏)와 관련된

한방문헌의 기록을 중심으로 적백(赤白)에 따른 하수오(何首烏)의 명칭과 식물분류학적 기원 및 각 나라의 약전 규정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II. 본론

1. 하수오類 한약재의 약전 비교

하수오類의 약재 중에서 적하수오(赤何首烏)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북한, 중국, 일본은 약전 혹은 규격집에 공통적으로 마디풀과(Polygonaceae)에 속한 하수오(*Polygonum multiflorum* THUMB.)를 기원 식물로 하고 있다³⁾⁹⁾¹⁰⁾¹¹⁾. 그러나 수록된 명칭에 차이가 있어 한국·중국·일본은 하수오(何首烏)로 하고 있으나, 북한은 적하수오(赤何首烏)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 및 우리나라에서 하수오(何首烏)에 대한 통용 명칭으로 적하수오(赤何首烏)와 백하수오(白何首烏)라는 이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북한은 일반적인 통용 명칭인 적하수오(赤何首烏)를 기본 약명으로 하고 있어 약전의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백하수오(白何首烏)는 중국과 일본의 약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와 북한은 약전 혹은 규격집에 수록하고 있으며³⁾¹¹⁾, 이는 우리나라와 북한에서 백하수오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기원 식물은 공통적으로 박주기라과(Asclepiadaceae)에 속한 은조롱(*Cynanchum wilfordii* HEMS.)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록 명칭은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는 백수오(白首烏)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은 적하수오(赤何首烏)와 구분되는 통용 명칭인 백하수오(白何首烏)로 수록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를 보면 한국·북한·일본·중국 모두 국가간에 한약재 사용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와 북한은 적하수오(赤何首烏)과 백하수오

(白何首烏)를 구분하여 약전 혹은 규격집에 모두 수록하고 있어 적하수오(赤何首烏)와 백하수오(白何首烏) 모두 비중있게 한방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적하수오(赤何首烏)는 수록하고 있으나, 백하수오(白何首烏)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백하수오(白何首烏)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고 적하수오(赤何首烏)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적하수오(赤何首烏)와 백하수오(白何首烏)의 맛에 대하여 대한약전의한약규격집의 성상에서 적하수오(赤何首烏)는 조금 쓰고 떫으며 백하수오(白何首烏)

는 쓰고 달며 떫다고 하여 백하수오(白何首烏)가 적하수오(赤何首烏) 보다 단 맛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전에 수재된 항목의 국가간의 차이는 자국에서 사용하는 약재의 종류나 선호도, 사용량 등이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으로 한방의료가 각 나라에 맞게 토착화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적하수오(赤何首烏)와 백하수오(白何首烏)를 약전의 기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용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표 1. 하수오類 한약재의 한국·북한·중국·일본 약전 수록 명칭 비교

	적하수오 (<i>Polygonum mulyiflorum</i>)	백하수오 (<i>Cynanchum wilfordii</i>)	비 고
한 국	하수오	백수오	대한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 (2002년)
북 한	적하수오	백하수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전 (1996년)
중 국	何首烏	-	중화인민공화국약전 (2000년)
일 본	何首烏	-	일본약국방외생약규격집 (1987년)

2. 적·백하수오의 기원식물에 대한 형태학적 특성

적하수오(赤何首烏)의 기원식물에 대하여 한국·북한·중국·일본은 공통적으로 마디풀과(Polygonaceae)의 하수오(*Polygonum mulyiflorum*)를 기원식물로 규정하고 있다³⁾⁹⁾¹⁰⁾¹¹⁾. 백하수오(白何首烏)는 우리나라

와 북한 모두 박주가리과(Asclepiadaceae)의 은조롱(*Cynanchum wilfordii*)을 기원식물로 하고 있으며, 식물명에 있어 은조롱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큰조롱이라고도 하며, 북한은 새박뿌리로 부르기도 한다³⁾¹¹⁾. 이들 기원식물의 형태와 특징은 그림 1과 같다¹⁵⁾.

그림 1. 적하수오(赤何首烏)와 백하수오(白何首烏)의 기원 식물 형태



(가)

(가) 적하수오(*Polygonum multiflorum*)



(나)

(나) 백하수오(*Cynanchum wilfordii*)

하수오 *Polygonum multiflorum*

전체에 털이 없고 뿌리는 땅속으로 번으면서 때때로 둥근 괴근(塊根)을 형성한다. 잎은 호생(互生)하며 엽병(葉柄)이 있고 난상(卵狀) 심장형(心臟形)이며 길이 3-6cm 나비 2.5-4.5cm로서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이 심장저(心臟底)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탁엽(托葉)은 짧은 원통형(圓筒形)이다. 꽃은 8-9월에 피며 백색이고 가지 끝의 원추화서(圓錐花序)에 달리고 꽃받침은 5개로 깊게 갈라지고 길이 1.5-2mm이지만 꽃이 핀 다음에는 길이가 5-6mm로 된다. 꽃잎은 없으며 수술은 8개이고 꽃받침보다 짧으며 자방(子房)은 난형(卵形)이고 암술대는 3개이다. 수과(瘦果)는 3개의 날개가 있으며 꽃받침으로 싸이고 길이 7-8mm이며 열매는 길이 2.5mm 정도로서 세모진 난형(卵形)이다.

은조롱 *Cynanchum wilfordii* (MAX.) HEMSL.

양지의 산록 풀밭 또는 바닷가 경사지에 자라는 덩굴성 다년초로 뿌리가 깊이 들어가며 굵고 원줄기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며 길이 1-3m이고 자르

면 백색 유액(乳液)이 나온다. 잎은 대생(對生)하며 삼각상(三角狀) 난심형(卵心形) 또는 심장형(心臟形)이고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이 심장저(心臟底)이고 둥글게 되어 양쪽 가장자리가 접근하며 길이 5-10cm, 나비 4-8cm로서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엽병(葉柄)은 원줄기 밑부분의 것은 길며 위로 올라갈수록 짧아지고 엽맥(葉脈)위에 털이 약간 있다. 꽃은 7-8월에 피며 연한 황록색이고 화서(花序)는 엽액(葉腋)에서 자라며 길이 1-4cm로서 꽃이 산형(傘形)으로 달리고 소화경(小花梗)은 길이 5-8mm로서 안쪽에 털이 있다. 꽃받침잎은 5개로 넓은 피침형(披針形)이며 예두(銳頭)이고 화관(花冠)도 5개로 갈라지며 열편(裂片)은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오그라들고 길이 3mm고 안쪽에 잔털이 있다. 열매는 길이 8cm 지름 1cm로 피침형(披針形)이며 종모(種毛)가 있다.

적하수오(赤何首烏)와 백하수오(白何首烏)의 식물분류학적 형태 중에서 한방의 문헌에 기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표2에 비교하였다.

표 2. 적하수오(赤何首烏)와 백하수오(白何首烏)의 기원 식물의 형태 비교

	잎	화서	꽃색	얼매
적하수오(赤何首烏) (<i>Polygonum mulyiflorum</i>)	호생	원주화서	백색	삼각상 난형 2.5mm
백하수오(白何首烏) (<i>Cynanchum wilfordii</i>)	대생	산형화서	황록색	피침형 8cm

3. 한방 문헌에 수록된 하수오(何首烏)의 형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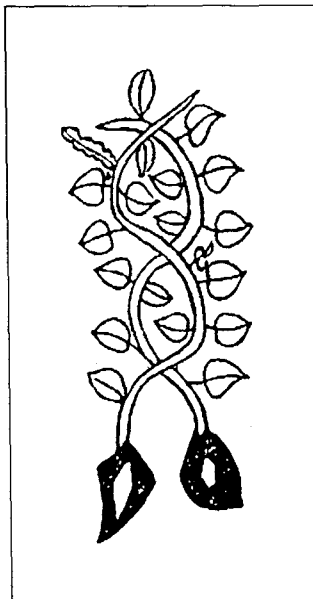
하수오(何首烏)의 형태에 대한 그림이 최초로 나타나는 『圖經本草』에는 西京何首烏의 그림이 묘사되어 있으나¹⁶⁾, 괴근(塊根)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통점 이외에는 현대의 식물 분류의 기준과 일치하는 점이 없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던 위품(位品)으로 추정된다. 『本草綱目』에 수록된 그림을 보면 잎이 대생을 나타내고 있고 얼매와 꽃으로 추정되는 부분의 형태가 적하수오(赤何首烏) 보

다는 백하수오(白何首烏)에 가까운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당시에 적하수오(赤何首烏)와 백하수오(白何首烏)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⁷⁾. 이후 『植物名實圖考』는 잎과 花序가 적하수오(赤何首烏)의 특징을 수록하고 있어 비로서 적하수오(赤何首烏)를 하수오(何首烏)로 정리하여 사용함을 나타내고 있다¹⁸⁾. 이는 역사적으로 적하수오(赤何首烏)와 백하수오(白何首烏)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으며, 근대 이후에 분류학적인 부분이 정립되면서 구분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 한방 문헌의 하수오의 식물 형태



(가) 『圖經本草』



(나) 『本草綱目』



(다) 『植物名實圖考』

4. 한방 문헌에 수록된 하수오(何首烏)의 구분

하수오(何首烏)와 관련한 최초 기록은 『經史證類大觀本草』에 “日華子云…此藥有雌雄 雌者苗葉黃白 雄者赤黃色 凡修合藥 須雌雄相合 喫有驗 其藥本草無名 因何首烏見藤夜交 便即採食有功 因以採人為名耳”라 하여 하수오(何首烏)의 명칭과 함께 赤白의 구분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⁴⁾. 『圖經本草』은 그 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春生苗 葉相對如山芋而不光澤 其莖蔓延竹木牆壁間 夏秋開黃白花 似葛勒花 結子有稜 似蕎麥而細小 穗如粟大 秋冬取根 大者如拳 各有五稜瓣 似小牒瓜 此二種 赤者雄 白者雌”라 하여 하수오(何首烏)의 형태와 赤白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⁶⁾. 李時珍은 『本草綱目』에서 “春生苗 蔓延竹木牆壁間 莖紫色 葉葉相對如薯蕷 而無光澤 夏秋開黃白花 如葛勒花 結子有稜 似蕎麥而細小 才如粟大 秋冬取根 大者如拳 各有五稜瓣 似小牒瓜 有赤白二種 赤者雄 白者雌…… 其根形大如拳連珠 其有形如鳥獸山岳之狀者 珍也”라 하여 이를 따르고 있다⁷⁾.

대부분의 처방서는 赤白을 구분하지 않고 하수오(何首烏)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에서는 赤·白의 하수오(何首烏)를 함께 사용하는 처방도 있어 『本草綱目』의 附方에 수록된 七寶美髯丹과 服食滋補은 赤白何首烏를 各等分으로 기록되어 있으며¹⁷⁾, 이와 관련하여 『本草求真』에서 “有赤雄白雌二種 凡使赤白各半”라 하여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²⁰⁾.

적하수오(赤何首烏)와 관련하여 李翱은 『何首烏傳』에서 “何首烏味甘生溫無毒 苗葉有光澤又如桃李葉 雄苗赤根遠不過二尺”라 하여 赤根의 특징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며⁴⁾, 『經史證類大觀本草』의 斗門方을 보면 “一名何首烏 又名赤葛”이나⁴⁾, 『本草綱目』의 附方에서 癰癧結核에 “一名赤葛 卽何首烏”와 癰疽毒瘡에 적하수오(赤何首烏)의 명칭만 있고 백하수오(白何首烏)의 명칭이 없다⁷⁾. 이에 비하여 근세 이전의 문헌에서 백하수오(白何首烏)를 단독으로 사용한 근거는 발견 할 수 없었다. 이는 하수오(何首烏)를 사용함에 있어 赤白의 구분을 두었으나, 백하수오(白何首烏)보다 적하수오(赤何首烏)를 중심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각 나라의 약전에서 赤何首烏를 何首烏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표 3. 『도경본초(圖經本草)』에 기록된 하수오(何首烏) 식물 형태

	식물 형태의 기록	분류학적 특성
잎	葉相對如山芋	백하수오
열매	結子有稜 似蕎麥而細小 穗如粟大	적하수오
뿌리	秋冬取根 大者如拳 各有五稜瓣 似小牒瓜	백하수오
꽃	夏秋開黃白花 似葛勒花	적하수오

4. 『방약합편(方藥合編)』에 수록된 하수오(何首烏)의 처방 조사

우리나라의 적하수오(赤何首烏)와 백하수오(白何首烏)에 대한 구분과 처방 활용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方藥合編』(1884년)에서 출현하는 처방을 조사하였다²¹⁾.

이를 보면 하수오(何首烏)의 명칭과 관련하여 하수오(何首烏)·백하수오(白何首烏)·적하수오(赤何首烏)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으나, 백수오(白首烏)의 명칭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하수오(何首

烏)의 명칭은 休癆飲·何人飲 등 4개의 처방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적하수오(赤何首烏)는 戊己丸 1개의 처방에만 수록되어 있었다. 이에 비하여 백하수오(白何首烏)는 戊己丸·烏苓湯·烏肝湯 등 7개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오히려 何首烏의 명칭 보다 출현 빈도 수가 많았지만 이들은 增補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방 의료의 우리나라에 도착화에 대한 증거의 하나로 하수오(何首烏)를 약용함에 있어 적하수오(赤何首烏)보다는 백하수오(白何首烏)를 중심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표4).

표 4. 『방약합편(方藥合編)』에 수록된 하수오(何首烏)를 사용하는 처방

수록명	처 방 명	수록부위
하수오 (何首烏)	休癆飲 何人飲 追癆飲 通順散	醫方活套
적하수오 (赤何首烏)	戊己丸	增補方
백하수오 (白何首烏)	戊己丸 烏苓湯 烏肝湯 甲日丸 破癆湯 胡麻散 結陰丹	增補方

5. 백하수오(白何首烏)와 백수오(白首烏)의 명칭에 대한 타당성

1) 백하수오 및 백수오의 약용 기원

백수오(白首烏)의 기원식물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대한약전의한약규격집에서 박주가리과(Asclepiadaceae)의 은조롱(*Cynanchum wilfordii*)으로 하고 있으나, 중국은 약전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中華本草』에서 은조롱과 동속식물인 *C. auriculatum*과 *C. bungei*를 白首烏의 기원식물은 하고, 이명으로 東醫壽世保元에 白何首烏가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白首烏의 명칭에 대하여 최초 문헌으로 『산동중약(山東中藥)』(1959년에 발간)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1999년에 발간된 『중화본초(中華本草)』는 이에 대한 고증에서 “江蘇의 해안지역에서 100여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뿌리를 何首烏로 사용하고 분말을 何首烏粉으로 판매되었다. 현재는 白首烏粉의 이름으로 건강식으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⁴⁾. 이를 보면 백수오(白首烏)의 명칭이나 약용에 대한 기원이 100여년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백하수오(白何首烏)를 약용으로 사용한 역사를 보면 중국 보다 일찍부터 사용하였다. 1613년에 저술된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하수오(何首烏)의 향약명으로 “은조롱”과 “새박불휘”라고 기술하고 있다²¹⁾. 이는 우리나라와 북한에서 백하수오(白何首烏)의 기원식물을 각각 “은

조롱”과 “은조롱(새박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3),11)}. 백하수오(白何首烏)라는 명칭으로 기록된 처방서로 현재 널리 활용하고 있는 『방약합편(方藥合編)』은 1884년에 간행되었으며²¹⁾,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은 1894년에 저작되어 간행 시기가 중국보다 약 70여년 정도 시기적으로 앞서고 있다²⁾. 따라서 백수오(白首烏)보다 문헌상 선행되어 나타나는 명칭인 백하수오(白何首烏)를 약전의 기본 명칭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백하수오 및 백수오의 명칭

백하수오(白何首烏)의 명칭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백수오(白首烏)로 부르며, 그 최초의 출전으로 『山東中藥』에 근거하여 명명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¹⁴⁾.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이를 채용하여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백수오(白首烏)를 기본 명칭으로 수재하고 있다³⁾. 그러나 우리나라의 임상을 보면 백수오(白首烏)라는 명칭보다는 백하수오(白何首

烏)의 명칭이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간되었고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약합편(方藥合編)』이나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 수록된 처방도 백수오(白首烏) 보다는 백하수오(白何首烏)라는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다²¹⁾. 뿐만아니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전』에서는 정식 명칭으로 백하수오(白何首烏)로 표기하고 있어¹¹⁾ 백수오(白首烏)와 백하수오(白何首烏)의 표기에 대한 시대적 연혁을 중심으로 명칭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백하수오(白何首烏)의 약용을 보면 중국과 일본은 약전이나 규격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북한은 수재되어 있으며 널리 사용하고 있다²¹⁾. 또한 일반적으로 백수오(白首烏) 보다는 백하수오(白何首烏)라는 명칭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백수오(白首烏) 명칭을 북한과 통일하여 백하수오(白何首烏)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백하수오(白何首烏)와 백수오(白首烏)의 명칭이 수록된 초기 서적

수록명	서적명	발간국가	연도
백수오 (白首烏)	산동중약(山東中藥) - 중화본초(中華本草)에서 인용-	중국	1959
은조롱 (새박뿌리)	동의보감(東醫寶鑑)	한국	1613
백하수오 (白何首烏)	방약합편(方藥合編)	한국	1884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한국	1894

III.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한·중·일·북한의 약전 혹은 규격집에 수재

된 하수오(何首烏)는 *Polygonum multiflorum*를 기원식물로 하고 있다.

2. 백하수오(白何首烏)는 한국과 북한의 약전 혹은 규격집에 *Cynanchum wilfordii*를 기원식물로 수록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수재하고 있지 않다.

3. 약전 혹은 규격집에 수재된 명칭과 관련하여 *Polygonum mulyiflorum*을 한·중·일은 하수오(何首烏)로 북한은 적하수오(赤何首烏)로 규정하고 있으며, *Cynanchum wilfordii*를 한국은 백수오(白首烏), 북한은 백하수오(白何首烏)로 규정하고 있어 각 나라 별로 명칭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 근세 이전의 한방 문헌에 나타나는 하수오(何

首烏)의 기록을 보면 백하수오(白何首烏)와 적하수오(赤何首烏)가 혼재되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우리나라 약전 및 규격집에 수록된 백수오(白首烏)의 명칭은 시기적·역사적 배경 및 활용성을 고려할 때 백하수오(白何首烏)의 명칭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本草學. 본초학교실 共編. 영림사(서울). 1995. 583-584
2. 東醫壽世保元. 李濟馬.
3. 대한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전분과회. 문성사(서울). 2002. 169,397
4. 經史證類大觀本草. 唐慎微. 송문사(서울). 1976. 298
5. 太平惠民和劑局方. 宋·太平惠民和劑局. 人民衛生出版社(북경). 1985. 157-8
6. 本草詳節. 清·閔鉞.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상해). 1985. 13-14
7. 本草便方. 清·劉善述. 重廣出版社(중광). 1988. 5
8. 醫方集解. 清·汪昂. 中國中醫藥出版社(북경). 1997. 4-5
9. 中華人民共和國藥典(2000년판). 國家藥典委員會. 化學工業(북경). 2000. 77, 127 ??
10. 한국·중국·일본의 생약비교연구. 한대석 등.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서울). 1996. 87, 183-4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전(제5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위원회. 의과학출판사(평양). 1996. 237-8, 309-10
12. 한약 유통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3세부). 김호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서울). 2000. 3·122
13. 수급조절대상한약재.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14. 中華本草. 國家中醫藥管理局 中華本草編委會. 上海科學技術出版社(남경). 1999. 6·333
15. 대한식물도감. 이창복. 향문사(서울). 1989. 304, 630
16. 圖經本草. 宋·蘇頌. 安徽科技出版(안휘성). 1994. 314-5
17. 本草綱目. 明·李時珍. 人民衛生(북경). 1977. 47, 1288-9
18. 圖說漢方醫藥大事典 卷三. 陳存仁. 講談社(동경). 1982. 124
19. 本草求真. 清·黃宮繡. 宏業書局(대북). 1987. 44-45
20. 方藥合編. 黃度淵. 남산당(서울). 1988. 189,190,195, 260,296,310,311,313,317,324,356
21. 東醫寶鑑. 許浚. 남산당(서울). 1989. 735